

◆ 會員社 動靜 ◆

LG電線(株), 765Kv용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개발

LG電線(株)(代表:權炆久)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765kV용 광섬유 복합가공지선(OPGW) 개발에 성공했다.

광섬유 복합가공지선(OPGW : Optical fiber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는 送電用 架空地線에 광섬유를 내장해 광선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케이블의 기능과 송전선을 보호하는 가공지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첨단 케이블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45kV용 OPGW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으나 송전전압의 격상과 전송 정보가 대용량화 됨에 따라 765kV 송전 분야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94년부터 30억원을 들여 이 케이블의 개발에 성공했는데 765kV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은 도전율이 기존 가공지선의 두배에 달하는 도전율 40%의 특수 알루미늄강성을 사용해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 케이블은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765kV 사업구간인 신태백-양평, 서산-당진 구간등 산악과 하천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역 조건에 따라 多雪지역 및 장거리용으로 설계됐다.

LG전선은 이 케이블이 또 기존 345kV용 OPGW에 비해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단층구조를 복층구조로 바꾸고 구간에 따라 1.55 μ m 영분산 광섬유를 사용하는 등 손실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765kV 가공송전선 설치가 본격화 되는 97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LG전선은 작년 3월, 765kV송전선과 가공지선을 개발해 전북 고창의 한전 실증시험장에서 시험을 통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765kV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을 개발함으로써 765kV용 모든 케이블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국내 송전전압의 초초고압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三星電機(株), ISO 14001 인증 획득

三星電機(株)(代表:李亨道)가 세계적 권위의 환경심사기관인 美國 UL社로부터 일반 전자부품 업체로는 최초로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三星電機 水原사업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던 UL社의 환경 경영활동에 대한 심사에서 17개에 이르는 환경경영 시스템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三星電機는 일반 전자부품업계의 특성상 환경친화적 제품여부를 구매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해 지난해 1월부터 ISO 14001인증 전담팀을 구성해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왔다.

특히 三星電機는 이번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그린라운드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관세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관련 비관세 무역장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ISO 14001 인증은 국제표준위원회가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표준규격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이 인증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中原電機工業(株), ASS 독자 개발 성공

개폐기류 전문생산업체인 中原電機工業(株)(代表:金在龍)는 최근 ASS(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 독자개발, 개폐기 종합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이번에 개발된 ASS는 과부하 보호기능, 축세트립기능, 돌입전류억제기능, 과전류 록크기능, 1회 계수기능, 2회 계수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中原電機는 그동안 인터럽트스위치, COS를 비롯 SF₆가스개폐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폐기류를 선두개발, 업계를 선도해 왔다.

LG産電(株), 베트남에 현지공장 건설

LG産電(株)(代表:李鍾秀)가 중국·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건설한다.

LG산전은 베트남 전력기기공사인 VEC(Vietnam Electric Equipment) 및 전력기기 회사인 비나킵(VINAKIP)社와 합작으로 배전반 생산 합작법인인 「VINA-LG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을 설립키로 하고 최근 베트남 산업부 당 부추 장관, VEC社의 람광 후엔 총사장과 이종수 LG산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의향서에 조인하고 조만간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VINA-LG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은 자본금 2백만 달러에 총 투자규모 5백만 달러 규모로 하노이 근교에 들어서게 되며 LG산전이 65%, VEC가 35%를 각각 출자하고 LG산전이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양사는 오는 9월말 정식 합작계약서에 서명하고 정부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부터 본격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LG산전은 이 공장에서 전력용 수·배전반을 우선 생산하고 향후 송배전설비와 진공차단기 그리고 저·고압기기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전 복합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LG산전과 합작공장 건설에 나설 VEC는 베트남 산업부 산하의 국영회사이며, 비나킵社는 VEC 산하에 있는 국영회사로 모두 전력기기 생산관련 업체이다.

LG산전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기를 베트남 내수판매와 함께 동남아지역에 수출할 방침이다. LG산전은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전력기기공장을, 중국 대련에 전력기기·제어기기 관련 현지 공장을 건설중이다.

極東電線工業(株), LAN케이블 UL 인증 획득

極東電線工業(株)(代表:崔炳哲)가 최근 개발, 선보인 LAN(근거리통신용) 「UTP케이블 카테고리5케이블」이 지난 9월 5일 UL로부터 특성시험에 통과, 인증서를 받게 된다.

미국전기통신협회의 일반 상업용 구내통신선 표준규격에 의거 개발완료, 시험기관인 UL(美보협협회)에서 특성시험을 끝낸 極東 LAN케이블은 이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사는 이와관련, LAN전담사업부 구성과 함께 전기·통신계통의 관계자들을 초청 시공 및 이론을 설명하는 기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極東電線이 개발 판매에 나선 LAN케이블은 최근들어 인텔리전트 빌딩을 비롯 일반공장, 관공서 등에 메인 컴퓨터를 이용 사내방송뿐아니라 화상까지도 제공하는 동맥역할을 하고 있어 점증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추세다.

극동전선 개발팀은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까지 구내 통신선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다 AT&T 등 해외제품이 95%이상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극동전선은 그러나 개발된 UTP카테고리5케이블은 까다로운 UL의 특성시험에 합격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뿐아니라 외국산의 관세 물류비를 포함한 높은 가격에 비해서도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향후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